

곡교리·曲橋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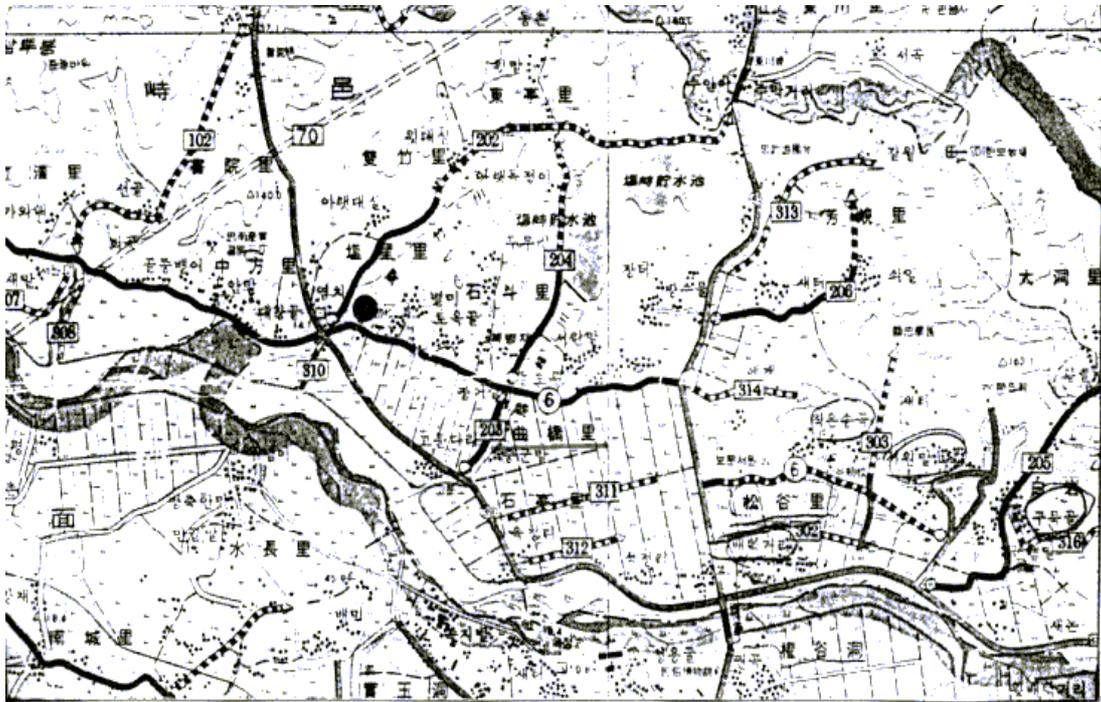
## 곡교리·曲橋里

< 구연자 : 아산시 염티읍 곡교 1리 김동삼씨(82세)

아산시 염티읍 곡교 2리 윤갑중씨(78세)>

곡교리는 염티읍의 한 마을로 구분다리와 중군말 마을로 구분되며, 곡교리의 총 인구는 451명이고, 127호가 살고 있다. 그 호구중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비농가 및 서비스업과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곡교리는 본래 아산군 근남면의 지역으로서 굽은 다리가 있으므로 고분다리 또는 곡교라 하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신중리와 온양군 이면의 소정리와 서면의 실육리의 곡교리라 하여 아산군 염티읍에 편입되었다.

<곡교리 위치도 >



### ☒ 고분다리, 중군말 마을 (곡교리)

곡교1리는 고분다리 마을이며, 곡교리의 주된 마을로 하나의 마을로 이루어졌으며, 옛날부터 나무로 굽은 다리가 놓여 있어서 마을 이름이 고분다리라 불리게 되었다.  
곡교 2리는 중군말 마을이며, 고분다리 동쪽 별안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중군이 주둔하였다 해서 중군말이라 부르게 되었다.

<조사 당시 곡교리 마을 관련 사진>



1) 위 치

고분다리 마을은 위도 36-48-10, 경도 126-59-00인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읍 소재지에서 남동쪽으로 직선거리로 1.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39번 국도를 따라서는 1.5km 정도의 거리에 마을이 있다. 또한 203번 도로의 시점이기도 하다.

중군말 마을은 위도 36-48-10, 경도 126-59-40인 지역에 위치해 있다. 고분다리 바로 옆마을로 203번 도로 오른쪽에 접해 있다. 읍 소재지에서는 남쪽으로 1.5km정도 되는 지점에 위치한다.

2) 현 황

고분다리 마을의 인구는 총 281명이며, 남자 144명, 여자 137명이 살고 있다. 호구수는 총 78호로 그 중 70%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25%는 서비스업에 그리고 나머지 5%는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중군말 마을의 인구는 남자 89명, 여자 81명으로 총 170명이며, 호구수는 49호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81%가 농업에 종사하고 11%는 서비스업, 8%는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 인구 현황

구 분 마을명	계	남	여
고분다리마을	281명	144명	137명
중군말마을	170명	89명	81명

- 생 업

구분 마을명	계	농업	축산업	서비스업
고분다리마을	100%	70%	5%	25%
중군말마을	100%	81%	8%	11%

고분다리 마을의 농경지 현황은 논 55.2ha, 밭 18.3ha 이며, 농기계는 동력경운기, 병충해 방제기, 양수기, 이앙기, 트랙터 등 각종 농기계를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다. 마을의 문화시설은 앰프가 구비되어 있는 마을회관 1개소가 있다.

중군말 마을의 농경지 현황은 논이 44ha, 밭이 5ha로 들판에 있어 밭농사 면적이 매우 적은 편이며,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등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농업에 이용하고 있으며, 마을의 문화시설로는 앰프가 구비되어 있는 마을회관 1개소가 있다.

- 농경지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논	밭
고분다리마을	73.5ha	55.2ha	18.3ha
중군말마을	49ha	44ha	5ha

- 문화시설

구분 마을명	계	마을회관	기타시설
고분다리마을	1개소	1개소	-
중군말 마을	1개소	1개소	-

고분다리 마을에 살고 있는 성씨 분포는 다양한 분포를 이루고 있으며 연령별 분포는 고르게 분포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40~50대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중군말 마을의 성씨별 분포를 보면 김씨 22%로 가장 많이 살고 있으며, 박씨, 이씨, 기타 성씨등 고르게 분포되었고, 연령별은 다른 마을과 다르게 젊은층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다.

- 성씨별 분포 현황

구분 마을명	계	김 씨	박 씨	이 씨	윤 씨	최 씨	기 타
고분다리마을	78호	4호	-	8호	8호	-	58호
중군말마을	49호	11호	5호	5호	-	-	28호

- 최고령자

고분다리 마을의 최고령자인 김 점금씨로 올해 88세이셨으며, 중군말 마을의 최고령자는 서 언년씨로 올해 86세이신데 두분 모두 건강하신 편이다.

3) 자연 경관

고분다리의 남쪽으로 V자형 도로가 있고 윗쪽으로는 넓은 들이 있다. 또한 마을 앞쪽에는 고분교가 놓여져 있으며, 고분교 건너편에는 논이 있고, 그 논에 접해서 작은 냇가 흐르고 있다.

중군말 마을의 왼쪽으로는 도로가 접해 있고, 도로변에 있는 몇채의 집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들이며, 마을 바로 옆에는 철길이 지나가고 있으며, 평지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

마을 주변에는 산이 없고 온통 들판으로, 마을 사이로 작은 냇가 흐르고 있다.

#### 4) 마을 변천과정

고분다리 마을과 중군말 마을의 변천과정은 아산군 근남면의 지역으로서 굽은 다리가 있으므로 고분다리 또는 곡교라 하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신중리와 온양군 이북면의 소정리와 서면의 실옥리의 곡교리라 하여 아산군 염티읍에 편입되었다.

#### 5) 입 향

고분다리 마을은 처음 함양 박씨가 들어와 터를 잡고 살았다고 하는데 현재는 박씨가 대부분 떠나고 몇 세대밖에 살고 있지 않으며, 함양박씨가 이 마을에서 현재 15대째 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서기 1550년경 약 450년경에 마을이 형성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중군말 마을은 어느 성씨가 터를 잡았다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것은 중군사들이 주둔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터를 잡은 성씨나 연대는 알 수가 없었다.

#### 6) 지 명

##### 十 고분다리 마을의 지명

·고분다리 : 곡교리의 주된 마을로 그전부터 나무로 굽은 다리가 놓여져 있음.

·비석거리 : 마을 앞쪽에 있는 것으로 옛 장터가 열린 곳으로 도선생 홍석주(洪奭周)의 거사비가 있어서 그렇게 불리고 있으며, 지금은 도로 공사관계로 비석이 마을회관 입구에 놓여 있음.

·주막거리 : 고분다리 옆에 있는 마을로 주막이 있었다고 함.

·장터 : 시장터에 있는 마을로 사람들이 커짐에 따라 고분다리 마을에 통합 되었음.

·염티교 : 고분다리에 있는 다리로 온양온천으로 통합.

·고분다리 : 고분다리 마을 남쪽에 있던 다리로 나무가 구부러지게 놓았었음.

##### 十 중군말 마을의 지명

·중군말 : 고분다리 동쪽 별안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중군이 주둔하였다 함.

·신교리 : 고분다리에서 다리교자를 쓰고, 새로움이라는 뜻의 한자 신을 합해서 새로운 다리라는 뜻으로 신교리라 하였음.

#### 7) 전 설

##### 8) 전통놀이 및 대표적 집단행사

고분다리 마을은 약 40년전까지는 두레와 풍물놀이가 행해졌었다. 또한 그때는 남녀 편을 갈라 줄다리기를 했었는데, 남자가 이기면 논농사가 잘되고, 여자가 이기면 밭농사가 잘된다고 하여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던 놀이였으나 현재는 행하여지고 있지 않다.

중군말 마을은 정월대보름에는 젊은 사람들이 모여 윷놀이를 하는데 그것은 서로간의 우애를 보다 더 돈독히 하며, 단결심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놀이였다. 그리고, 예전에는 줄다리기의외에도 다른 많은 행사를 하였으나, 세월이 흐를수록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모임으로는 예전에 두레가 있었고, 현재는 연반계라고 하여 마을에 큰 행사, 즉 초상때 상여를 매주고, 경사가 있을 때 서로 일을 돕는 조직이며, 일년에 한번씩 모여서 결산을 보고 있다.

##### 9) 소개할만한 인물

고분다리 마을, 중군말 마을은 특별하게 소개할 만한 인물이 없지만, 고분다리 마을에 자세한 내력을 알 수 없는 분의 비석이 있는데 홍석주의 거사비라 불리고 있으며, 홍석주라는 사람은 순찰사로 치안을 담당하던 사람이라 하는데 언제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지역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하였다고 한다.

##### 10) 종교단체

고분다리 마을에는 종교 단체가 없으며, 중군말 마을에 곡교 제일장로 교회가 있으며, 신도수는 30명정도로 고분다리 마을 사람들 일부와 중군말 마을 사람들이 다니고 있다.

##### 11) 공장현황

곡교리에는 고분다리 마을에 두 개의 공장이 들어서 있는데 도축 및 가공 그리고 농기계 제조 판매하는 공장이다.

·아산농산-곡교 208-40, 종업원수 7, 도축 및 가공

·아산기계산업-곡교 181-8, 종업원수 7, 농기계제조 판매

#### 12) 마을의 특성

고분다리 마을은 홍석주 거사비가 마을에 위치해 있으며, 들판에 있는 마을로 도로를 중심으로 고분다리와 중군말로 나뉘어 있으며 밭농사보다는 논농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쌀의 수확량이 많은 편으로 멀리 영인산이 보인다.

중군말 마을도 역시 들판에 위치한 마을로서 논농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쌀의 수확량이 많은 편이며, 마을에 산이 없는 관계로 마을에 들어서면 탁 트인 자연환경과 마을 사람들의 넉넉함을 느낄 수 있다.